

韓·李, 민생 협의기구 운영 합의...채해병 특검법은 불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회담

추석연휴 응급의료체계 구축·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추진 등 합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회담을 열고 민생 공동 공약을 추진하는 협의기구를 운영하는 방안 등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현 정부 들어 여야 갈등으로 민생 법안과 예산 처리가 늦어지는 등 정쟁을 멈추지 않았던 국회가 토론과 협의를 통한 협치의 길을 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실도 양당 대표의 회담이 열린 데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어놓으며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한 대표와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민생 공약을 위한 협의기구 운영을 포함해 8개 사항에 대해 합의했다. 쟁점이었던 해병대원 특검법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법은 공동 발표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판규택 수석대변인과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대표회담 종료 후 '공동발표문'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양당은 이어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 등 활성화 방안을 검토했고, 현재의 의료 사태와 관련해 추석 연휴 응급 의료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다만 해병대원 특검법 합의는 양 측이 이견을 보여 불발됐다.

이들은 약 1시간 43분 동안 회담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양당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이들 대표가 합의한 내용은 크게 8가지다.

양당은 '민생 공동 공약 추진하기 위해 협의기구 운영'하기로 했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구조적 문제를 논의하고 방안을 함께 종합 검토하자'는데 합의했다.

또 '추석 의료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정부에 당부하고 국회 차원 대책 협의', '반도체 산업 AI 국가 기간전략망 확충 지원방안 적극 논의'를 약속했다.

가계 소상공인의 '부채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저출생 대책 일환으로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 연장·확대를 위한 입법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딥페이크 성범죄 심각성에 인식 같이 하고 '처벌과 제재 예방'을 위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정당 정치 활성화를 위해 '지구당제 도입'도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이날 한 대표는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등 정치 개혁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저출생 극복 법안 우선 처리 등을 제안했다.

한 대표는 이 대표와의 회담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불체포특권, 재판기간 중 세비납납 등 특권

한동훈-이재명 대표 8개 합의 내용

- 양당의 민생 공동 공약 추진 위해 협의기구 운영
- 금투세 관련 주식시장 구조적 문제 등 활성화 방안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 협의
- 추석연휴 응급 의료 구축에 만전 기할 것을 정부에 당부, 국회 차원 대책 협의
- 반도체 산업, AI 산업, 국가 기간 전략망 확충 지원 방안 적극 논의
- 가계와 소상공인 부채 부담 완화 위한 지원 방안 적극 강구
- 저출산 대책 일환 맞벌이부부 육아휴직 기간 연장 등 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입법 과제 신속 추진
-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 심각성 인지, 처벌과 제재 예방 등 제도적 보완방안 신속 추진
- 정당 정치 활성화 위해 지구당제 도입 적극 협의

내려놓기 개혁을 이번엔 반드시 실천하자"면서 "과거 이 대표도 면책특권 제한 필요성을 여러차례 제기했으나, 양당 대표의 생각이 같은 지금이 면책특권 제한 추진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또 한 대표는 '민주당의 법안 강행처리-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재결결-법안 폐기-재발의'가 되풀이되는 점을 지적한 뒤 "이런 악순환을 끊어내자"며 "오늘 정쟁 종단을 선언하고 미래지향적 정치개혁 비전에 전격 합의하자"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한 대표에게 "여야가 함께 의료대안 대책과 해법을 강구해보자. 한 대표도 정부와의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대안을 냈는데, 의료대안은 국민 생명에 관한 문제이다"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채해병특검법과 관련해 "한 대표는 전 국민을 상대로 '제삼자 특검'을 하자고 공언했다. 그 진심이 바뀌지 않았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증거 조작 의혹도 특검하자고 했는데 수용하겠다. 이제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금투세에 대해서는 "지금 적용하면 안 그래도 비정상인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보완하지는 차원에서 나온 얘기"라며 "금투세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대신 주식시장 부스트 업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국민의힘 한동훈(오른쪽)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오후 국회에서 채해병 특검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을 논의하는 여야 대표 회담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수 부진...소비도 시설 수요도 감소

7월 광주·전남 산업활동 동향

식재료 등 생필품 소비까지 위축

건설수주액 공공·민간 모두 줄어

광주·전남지역 내수부진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지난 4월 이후 4개월 연속 하락했고, 지역 건설업체들의 부진 속에 건설 수주액도 대폭 감소하는 등 경기지수의 하락이 계속되고 있다.

서민만이 아니라 중산층과 부유층까지도 소비를 꺼리고, 새로운 건축물이나 시설에 대한 수요도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광공업 생산은 소폭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1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7월 광주·전남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광주시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92.9로 전년 동월(102.7)과 전월(94.0) 대비 각각 9.6%, 1.2% 하락했다.

특히 지난 6월에는 백화점을 중심으로 소비가 부진했던 반면, 지난 7월에는 대형마트 판매액지수의 하락폭이 더 컸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역민들이 고물가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사치품 뿐만

아니라 식재료 등 생필품 소비조차 줄인 결과로 분석된다.

광주시 대형소매점에서 백화점 판매액지수는 95.5로 전년 동월(95.5)보다 9.0% 하락했고, 대형마트 판매액지수는 10.1% 줄었다.

상품군별로 보면 신발·가방(-25.2%)이 가장 많이 하락했고, 의복(-11.6%), 음식료품(-8.4%), 화장품(-5.6%) 등 순으로 집계됐다.

전남 대형소매점 판매액 지수도 지난 7월 기준 89.7로 전년 동월(102.9)에 견줘 12.7% 감소했다. 전남지역에서는 의복(-17.0%), 기타상품(-16.0%), 화장품(-14.3%), 신발·가방(-14.0%), 음식료품(-12.2%), 오락·취미·경기용품(-10.7%), 가전제품(-6.3%) 등의 소비가 감소했다.

광주·전남 건설수주액도 공공·민간 모두 부문에서 눈에 띄게 줄었다.

광주시 건설수주액은 지난 7월 기준 216억원으로 전년 동월(1331억원) 대비 83.8% 감소했다. 공종별로는 건축부분과 토목부분에서 각각 83.5%, 94.3% 줄었다.

같은 기간 전남 건설수주액 역시 전년 동월(4281억원)보다 23.1% 감소한 3291억원을 기록했다. 건축부분이 90.6%, 토목부분에서는 80.0% 감소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도 싱크홀 안전지대 아니다 ▶6면

KIA, 호랑이 꼬리 잡으려는 사자 혼쭐 났다 ▶18면

호남의 누정 원림 - 화산 임대정 ▶22면

2024 우리 청춘 빛나리

전라남도 청년의 날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2024. 9. 21. SAT 14:00~17:00



행사 초청 청년특강
스타강사 **김미경**
변화의 시대 리더로 사는 법



뮤지컬 갈라쇼
뮤지컬 맛집 **뮤토피아**
뮤지컬 시카고, 지킬앤하이드, 맘미아 등 유명작품 갈라 콘서트



청년의 날 부스
먹거리 즐기기 **행사부스**
청년마을, 청년창업가들의 원데이 클래스 등 체험부스



KENTECH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